

# 예산안 3년 연속 날치기 처리 되나

### 한나라 "6일 예결위서 꼭 강행처리" 비상대기령 민주 "4대강 예산 삭감없이 상정 못해" 실력저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나라당은 오는 6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없이는 본회의 상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행처리와 실력저지가 맞서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것은 물론 정국회 총리 시한(12월9일)까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일단,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정부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에 부딪힌다면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여

야간에 합의돼 있는 일정대로 오는 6일 예결위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 폐회일(9일) 전인 7~8일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여야 대치로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명예를 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일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심사 일정 합의되지 않는 국회 상임위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전 의원과 보좌관은 5일까지 해외일정을 마치고 6일부터 비상대기 해달라"

고 당부, 경우에 따라 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당초 예정됐던 감세와 개헌 논의 등은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9조6000억원 가량의 4대강 사업 예산 중 70%를 삭감,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또한, 북한의 연평도 공격 사태를 계기로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 국방 예산을 늘리는 데 투입하겠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실력저지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안보 정국을 지렛대로 삼아 3년 연속 정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측생의 각오로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올해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으로만 치달았다면 여론의 거센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소폭 감액하는 선에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시점을 전후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햇볕정책 부정이 北 도발 야기"

### 손학규 방송클럽토론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햇볕정책을 부정하면서 계속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의 길로 걸어왔고, 그 결과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사태에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권과 보수층이 주장하는 햇볕정책 책임론에 대해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평화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코너에 모는 논리"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는 햇볕이 북에 대해 모든 것을 용인하는 양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햇볕정책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최소한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당의 대북 노선에 대해 "대북 평화 포용정책이 기본"이라며 "햇볕정책이 기본은 틀림없다"고 전제한 뒤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는 햇볕이 북에 대해 모든 것을 용인하는 양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햇볕정책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제한한 것에 대해 "지금도 회담의 전제조건을 달지, 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론 오늘 당장 무조건 대화의 길로 나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내일은 어차피 대화로 가야 하고, 평화가 궁극적 길이려면 일단저하에 거절하기보다 중국에 협조할 자세가 돼있음을 보여주는 게 성숙한 외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에 대해 "정상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대응은 안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대응한다면 안보와 평화, 양면 전략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내년 국방예산 32조 의결

### 7332억원 증액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31조2795억원)에서 7332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보다 2.3%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조난자 위치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구입 필요성이 제기된 무선인식 레이

프자켓 구입비용으로 26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GOP(일반전초) 전술도로포장에 27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대통령 전용기 격납고 예산 89억원이 신설됐고, 서해5도 경도진지 및 거점시설에 화생방공격에 대비한 방호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99억원이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늘어났다. 또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000억원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03억원 등이 반영됐다. 서보로서 긴급전력 보강과 관련해서는 총 3105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여기에는 K-9 자주포(866억원) K-55A1 자주포(115억원) 지상표적정밀 타격유도무기 착수금(19억8천만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11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371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89억원) 등이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달간 연평도서 경계근무 서겠다"

### 이윤석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연평도의 해병대 초소에서 한달간 경계병으로 근무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고 국회가 있다"며 "12월 1일부터 한달간 해병대 최전방 연평도 초소에서 경계병으로 자원 근무하겠다고 국방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저의 진정성을 받아주고 근무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섬이 많은 무안·신안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으로, 군대는 지난 1982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예산심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 민주 '수권정당화' 당내 개혁 시동

### 당 개혁특별위원회 출범... 29명 위원 선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 첫 회의를 갖고 당 내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개혁특별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현직 국회의원 12명(위원장 외) 등 전·현직 의원을 포함, 지방의원·평의원·외부인사 등 중심으로 2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현직 의원으로는 3선의 김부겸·이종걸, 재선의 김동철·주승용·전병헌·노영민·문학진·백원우·최규성, 초선의 박선숙·최순수·김희철 의원 등이 참여하며 시민사회단체

에서는 손학재 한국 비정부기구(NGO)회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김한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등 3명이 위원에 포함됐다. 김태일 연남대 교수, 최재천 의원이 단장을 맡은 외부 자문위원단과 실무지원단도 각각 구성됐다. 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당의 전면적 체질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 "그동안 정당의 역사를 보면 당 개혁이 승리하면 성공했고 실패하면 패배했다. 국민과 공감하는 민주당, 당심과 민

심이 일체가 되는 미래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특별위는 앞으로 당원제도 정비, 당원의 참여제도 마련, 공천 및 경선제도 혁신방안 마련, 사무처 개편안 등 당 개혁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선출제도 분과위에서는 공천과 경선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특위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가급적 내년 1~2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남경필 "한미훈련 끝날 무렵 가장 위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이즈음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북한의 행동패턴을 보면 몇 가지 공

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같은 도발을 계속 저지르지 않고, 둘째는 우리가 군사훈련을 끝내거나 끝낼 무렵 도발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지금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책임 공방은 지금 시점에서 김정일 부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강

조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연합훈련이 내일 끝나는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무력도발 시 철저히 응징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최신형 KDVD-2300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감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기 1등 기업인 금영은 최근 가정에서도 노래방과 똑같은 환경으로 즐길 수 있는 2010년형 'DVD 노래방기'를 출시했다. 노래방에서와 같이 큼직한 가사와 고화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며 2개의 마이크로 두어 곡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노래 곡수도 시중 노래방과 같은 수준인 2만8000곡으로 국내 최대곡이 내장되었다. 일반 대중가요는 물론 트로트·팝송·일본가요 등이

들어있고 초등학교 동요도 수록했다. DVD 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하여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만능 제품이다.

▶ 효도선물 1위 금영 노래방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말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 정품마이크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구매문의 02-522-4355

##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물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 주요성분
  - 특수 속성된 식물성 유지
  - 실수세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산소제 HJ-1,2
  - 글리세린
-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포츠를 많이 하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 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풀/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 전대점 268-8111

# 공인중개사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월 1일 주간반 야간반

현재 전과목 강의중(청강환영)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60명

합격 을 원하신다면 한수강료 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서구청앞) 361-8111 전대점 (전대구청앞) 268-8111